

제 1 교 시

2027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공
관

[1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롤랑 바르트는 사진이 실재와 유사하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았다. 바르트에 따르면 회화나 문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과 달리 사진은 반드시 실재하는 피사체를 대상으로 한다. 바르트는 사진과 피사체는 ㉠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사진과 그 사진의 피사체는 구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진의 고유한 속성은 ‘유사성’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바르트는 사진의 대상인 피사체와 사진을 보는 관객의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사진의 고유한 속성을 ㉡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르트에 따르면 사진에 찍힌 피사체는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다. 이 피사체의 시공간은 실재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한 번뿐이다. 바르트는 이러한 속성을 피사체의 실재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진이 보여 주는 실재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피사체의 과거이다. 관객은 사진에 찍힌 피사체를 살아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동시에 피사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의식하는데, 이를 피사체의 시간성이라고 한다. 바르트는 이러한 특성들로부터 ‘그것이-존재-했음’을 사진의 본질로 파악했다.

바르트는 피사체의 특성으로부터 관객이 얻는 쾌감을 ‘스튜디오’와 ‘푼크툼’으로 분류하였다. ‘배우다’라는 의미의 어원을 지닌 ‘스튜디오’는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공유되는 지식과 약속된 기호에 의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뒷마루, 쟁기, 외양간 등이 등장하는 사진을 보고 관객은 사라진 전통 문화를 알아보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사진을 보고 공유되는 지식과 약속된 기호를 알아보는 쾌감을 스튜디오이라고 한다. 한편 ‘작은 배인 상처’라는 의미의 어원을 지닌 ‘푼크툼’은 개인적·경험적 측면에서 관객의 기억이 건드리는 강렬한 쾌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헐거워진 구두 끈 사진을 본 관객이 어린 시절 신발 끈을 매어 주던 할머니를 ㉢ 떠올리고 그리움을 크게 느꼈다면 이것을 푼크툼이라고 부를 수 있다.

— 사진은 이미 지나간 시공간을 거꾸로 되돌려 관객에게 ‘그것이-존재-했음’을 보여 주고 관객은 사라진 실재의 재현을 시각적으로 체험한다. 즉 사진은 존재했던 것을 관객의 의식 속에서 되살려 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바르트는 사진은 예술이 아니라 ‘마술’이라고 주장했다.

(나)

빌렘 플루서는 사진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진의 본질에 접근했다. 플루서에 따르면 고대 인간은 세계를 평면 위에 이미지로 재현했고, 이후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문자를 발명했다. 근대에 이르러 광학이나 화학과 같은 과학 기술이 집약된 장치인 사진기를 만들었고, 이 장치가 산출하는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다. 플루서는 이를 ‘기술 이미지’라 명명하며 최초의 기술 이미지인 사진을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기술 문명의 속성을 대표적인 장치인 사진기를 통해 파악하였다.

기술 이미지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만들어 내는 사진기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기의 구조와 사진을 생성하는 과정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사진기가 자동화되고 조작이 편리해지면서 누구나 셔터만 누르면 사진을 ㉤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진을 찍는 일이 쉬워질수록 사용자는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없어졌고, 사진기가 산출한 이미지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플루서는 사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른 채 사진기가 만들어 낸 이미지를 실재로 여기는 상태를 ‘사진 문맹’이라 정의했다. 사진 문맹인 사람은 사진기의 설정대로 사진을 찍는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플루서는 이런 태도를 ‘마술적 수용’이라 일컬었다.

플루서는 마술적 수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치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루서에 따르면 사진가는 사진기의 설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진기의 다양한 기능을 탐색하여 관객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진을 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관객은 사진기의 다양한 기능뿐만 아니라 사진가의 의도까지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진이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믿음을 깨뜨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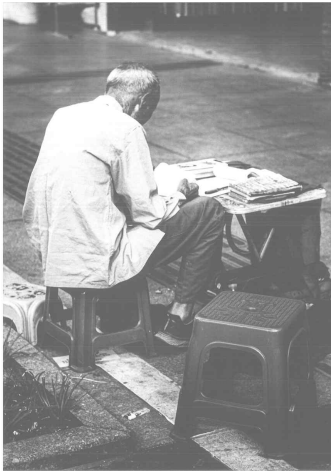
기술 문명이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는 사회에서 플루서는 장치의 지배를 가장 먼저 인식했으며 그에 저항할 것을 주장했다. 플루서의 논의는 사진을 실재의 재현으로만 보던 통념에서 벗어나 기술 이미지가 인간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인간을 어떻게 길들이는지를 장치의 차원에서 해명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1.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바르트는 관객이 사진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약속된 기호를 읽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바르트는 관객이 사진의 피사체가 살아 있다고 느끼면서 사라졌다고 인식하는 것을 피사체의 실재성이라고 하였다.
- ③ 플루서는 근대 이전의 이미지와 구분하여 사진기가 만든 이미지를 ‘기술 이미지’라고 명명했다.
- ④ 플루서는 기술 문명이 퍼져 있는 사회에서 ‘마술적 수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장치의 지배에 저항할 것을 주장했다.
- ⑤ 바르트는 사진의 대상인 피사체와 사진을 보는 관객의 경험을, 플루서는 장치가 산출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2.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보 기 >



복잡하지만 정밀한 조작이 가능한 사진기로 흰 옷을 입은 노인과 배경이 되는 거리를 새롭게 포착하였다. 좌판 앞에서 의자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는 모습은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조절하여 촬영하였다. 좌판에는 현책이 흩어져 있다.

- : 사회 통념상 거리에 놓인 좌판, 쌓인 현책, 쪼그려 앉은 노인 등은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상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할 수 있어.
 △△ : 의자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니, 매일 새벽에 서재에서 책을 보시던 할아버지가 정말 그리워.
 □□ :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조절하여 흰 옷을 입은 노인의 모습과 배경이 더욱 대비되도록 촬영했다고 느껴져.

- ① 흰 옷을 입은 노인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 바르트는 반드시 실재하는 피사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겠군.
- ② 좌판 앞에 앉은 노인을 노점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바르트는 사회에서 공유되는 지식과 기호에 근거했다고 보겠군.
- ③ 책장을 넘기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책을 보시던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에 대해, 바르트는 피사체가 관객의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렸다고 보겠군.
- ④ 복잡하지만 정밀한 조작으로 노인의 모습과 배경을 포착한 것에 대해, 플루서는 사진기의 특수한 기능을 통하여 사진이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보겠군.
- ⑤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조절하여 대비되도록 촬영했다고 느낀 것에 대해, 플루서는 관객이 사진기의 다양한 기능과 사진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췄다고 보겠군.

3. 바르트와 플루서의 입장에서 <보기>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 보 기 > —

- ㄱ. 회화나 문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ㄴ. 사진기의 자동화는 관객이 사진기의 설정을 읽어 내도록 돕는다.
 ㄷ. 관객은 사진을 통해 현실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느낄 수 있다.
 ㄹ. 사진가는 관객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

- ① 바르트는 ㄱ과 ㄴ에 동의하겠군.
 ② 플루서는 ㄱ과 ㄴ에 동의하지 않겠군.
 ③ 바르트와 플루서 모두 ㄴ에 동의하지 않겠군.
 ④ 바르트는 ㄴ에 동의하지 않고 플루서는 ㄴ에 동의하겠군.
 ⑤ 바르트는 ㄴ에 동의하지 않고 플루서는 ㄴ에 동의하겠군.

4. [A]에 대한 빌렘 플루서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관객이 사라진 실재의 재현을 시각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사진이 장치가 산출한 기술 이미지임을 간파한 결과이다.
 ② 관객이 지나간 시공간을 되돌려 의식 속에 되살려 내는 것은 사진가가 예상하지 못한 관객의 능동적 반응이다.
 ③ 사진이 과거의 존재를 되살려 낸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진을 실제로 믿는 사진 문맹 상태이다.
 ④ 사진이 예술이 아닌 ‘마술’이 될 수 있는 것은 관객이 사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해서 수용했기 때문이다.
 ⑤ 사진에서 사라진 실재를 마주한 관객은 사진가와 사진기의 구조를 파악한 적극적 주체이다.

5.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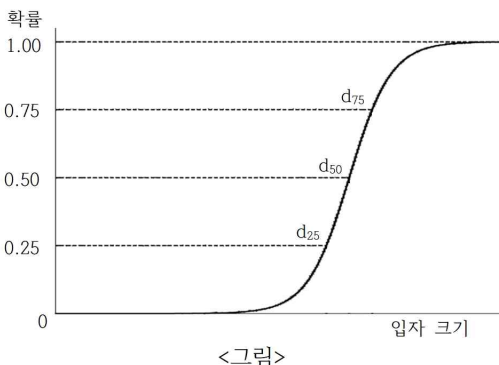
- ① ㉠: 분리(分離)될
 ② ㉡: 규명(糾明)할
 ③ ㉢: 회상(回想)하고
 ④ ㉣: 습득(拾得)할
 ⑤ ㉤: 탈피(脫皮)하여

[6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류 분급기는 공기 흐름을 따라 잘 움직이는 입자와 그렇지 못한 입자의 차이를 활용해 분말을 입자 크기별로 분류하는 장치로, 공산품이나 의약품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최첨단 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기 중에서 입자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만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생기는 항력에도 영향을 받는데, 입자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은 입자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입자의 질량도 입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데, 크기가 작은 입자는 질량도 작아 운동 상태가 쉽게 바뀔 수 있으므로 공기 흐름을 비교적 잘 따라가지만 질량이 커짐에 따라 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질량이 큰 입자는 운동 상태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공기 흐름의 방향이나 속도가 급격히 변할 때 질량이 큰 입자는 이를 즉각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움직임의 차이가 기류 분급의 기본 원리이다.

기류 분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완 시간(τ)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완 시간은 입자의 운동 상태가 공기 흐름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예를 들어 정지해 있는 입자 주위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입자는 처음에는 그대로 있다가 점차 공기 흐름에 의해 끌려가며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때 입자 속도가 공기 속도에 가까워지는 데 ㉠ 걸리는 시간이 이완 시간이다. 이완 시간이 작다면 입자는 공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기 흐름을 잘 따라가고, 이완 시간이 크다면 공기 흐름에 둔감해 공기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 그러나 이완 시간만으로는 기류 분급의 정도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완 시간을 유동 특성 시간(t_f)과 비교하는 스토크스 수를 사용한다. 유동 특성 시간은 공기 흐름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공기가 흘러가는 커브 구간의 길이인 특성 길이(L)를 공기가 흐르는 속도(U)로 나눈 값이다. 이때 특성 길이는 커브가 시작된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특성 길이가 증가할수록 커브가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가 흐르는 커브 구간이 완만하거나 공기가 흐르는 속도가 느려질수록 유동 특성 시간은 증가한다. 스토크스 수는 이완 시간을 유동 특성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되는데, 스토크스 수가 1보다 훨씬 작으면 입자가 공기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여 공기 흐름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스토크스 수가 1보다 훨씬 크다면 입자는 공기 흐름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공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기류 분급에서는 이상적인 분급이 아니라 입자의 크기에 따른 확률적 분급이 ㉢ 이루어진다. 이때 분급의 기준이 되는 입자 크기를 컷 사이즈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d_{50} 이라는 지표를 사용한다. d_{50} 은 해당 크기의 입자가 공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확률이 50%가 되는 경계를 의미한다. 이때 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급 곡선을 그리면 <그림>과 같이 d_{50} 을 중심으로 S자 형태의 곡선이 형성될 수 있다. 또 d_{50} 을 중심으로 d_{25} , d_{75} 와 같은 지표를 함께 사용하여 이들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분급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기류 분급의 대상이 되는 입자가 아주 작아져 수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 입자가 되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오히려 커다란 입자 쪽으로 섞이는 비율이 증가하는 ㉣ ‘낙시 바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입자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입자 간의 인력이 급격히 우세해지면서 발생한다. 초미세 입자들이 인력에 의해 서로 뭉쳐 응집체를 형성하면 응집체는 큰 입자처럼 움직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분급의 정밀도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류 분급 공정에서는 초미세 입자가 서로 뭉쳐 응집된 상태로 유입되지 않도록 입자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점]

- ①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생기는 항력은 입자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 ② 기류 분급 정도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스토크스 수를 사용한다.
- ③ 질량이 큰 입자는 관성이 커서 기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 ④ 기류 분급기는 공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의 움직임 원리를 삼아 분말을 분류한다.
- ⑤ 분급의 기준이 될 수 있는 d_{50} 은 해당 크기의 입자가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확률이 5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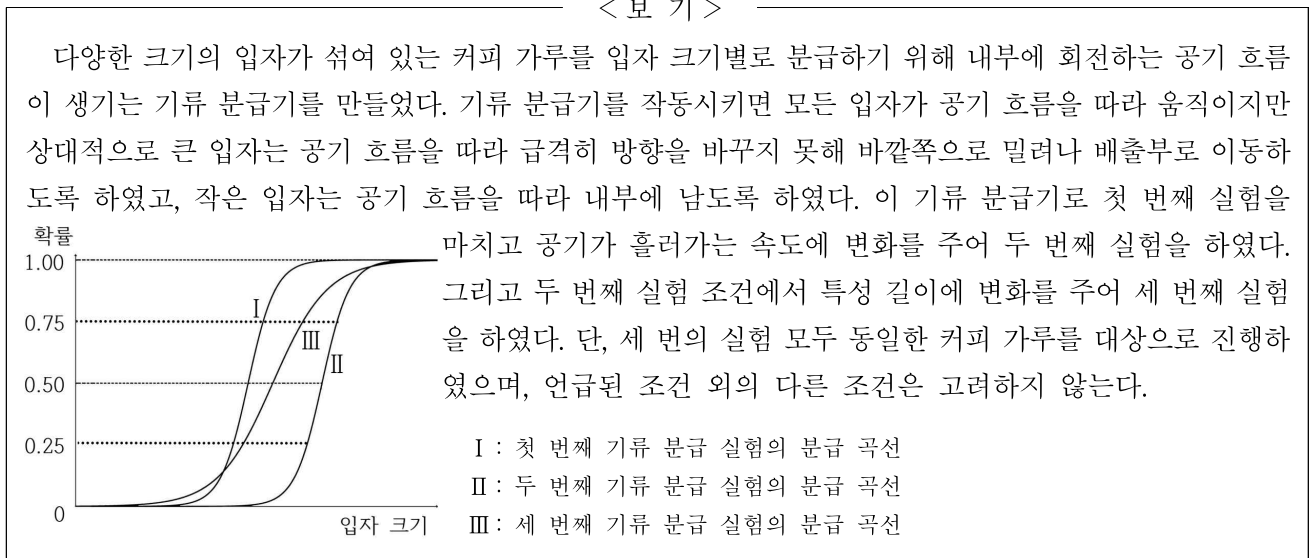
7.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스토크스 수는 공기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 ② 스토크스 수가 1보다 훨씬 크다면 입자는 공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기가 흐르는 커브 구간이 완만해지면 스토크스 수가 커진다.
- ④ 특성 길이가 일정할 때 공기가 흐르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유동 특성 시간이 짧아진다.
- ⑤ 입자 속도가 공기 흐름의 속도에 가까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특성 길이가 증가한다.

8. ㉠과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응집체는 응집되기 전의 초미세 입자보다 공기 속도에 가까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겠군.
- ② 크기가 아주 작은 초미세 입자들이 커다란 입자 쪽으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군.
- ③ 초미세 입자가 서로 뭉쳐 응집된 상태로 유입되지 않도록 입자들을 분산시키면 분급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겠군.
- ④ 입자 간 인력의 작용을 방해하면 기류 분급 공정에서 초미세 입자가 뭉쳐진 상태로 유입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겠군.
- ⑤ 동일한 공기 흐름에서 초미세 입자들이 응집체를 형성하면 표면적이 커지므로 개별 입자일 때보다 이완 시간이 감소하겠군.

9. <보기>는 기류 분급기를 만들어 분급 성능을 측정한 실험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d_{50} 을 기준으로 I 과 II를 비교하면, 첫 번째 실험보다 두 번째 실험에서 공기 흐름이 더 느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② d_{50} 을 기준으로 II와 III을 비교하면, 세 번째 실험보다 두 번째 실험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를 분리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③ d_{50} 을 기준으로 I 과 III을 비교하면, 첫 번째 실험에서 d_{50} 에 해당하는 크기의 입자는 세 번째 실험에서 배출부로 이동할 확률이 50%보다 높아지겠군.
- ④ d_{50} 을 중심으로 d_{25} , d_{75} 의 간격을 비교하면, 두 번째 실험보다 세 번째 실험에서 특성 길이를 길게 하여 분급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⑤ 입자가 공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확률이 100%가 되는 컷 사이즈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첫 번째 실험에서 배출부로 이동하지 못하고 분급기 내부에 남아 있는 입자들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10.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점]

- ① ㉠ : 과제를 완성하기까지 나흘이 걸렸다.
 ㉡ : 신용을 바탕으로 한 중고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 ② ㉠ : 그 범인에 대한 큰 현상금이 걸렸다.
 ㉡ : 부모님들의 성화 덕에 두 사람의 혼담이 이루어졌다.
- ③ ㉠ : 친구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
 ㉡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
- ④ ㉠ : 영화 속 주인공이 악당의 계략에 걸렸다.
 ㉡ : 경기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 ⑤ ㉠ : 새로 산 휴대 전화에 익숙해지기까지 한나절이 걸렸다.
 ㉡ : 우리 동아리는 면접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11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분쟁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로 해결할 수 있지만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소송 외의 분쟁 해결 방법을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한다. 법원에서의 판결은 대립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도 선고될 수 있는 것과 달리, ADR는 어떤 형식으로도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의 해소에 방점을 둔다. 소송과 ADR의 다른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하는 사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개인적인 사과를 하지 말 것을 권유하지만, ADR에서는 사과가 분쟁 해소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ADR에는 화해, 조정, 중재가 있다.

화해는 당사자 상호 간에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법에서 화해 제도는 재판 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 재판 외 화해는 ㉠ 민법상의 화해 계약을 의미하며, 실생활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합의라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상의 화해 계약은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준 경우 당사자 간에는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화해 이전의 법률 관계를 다룰 수 없게 되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재판상 화해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로 나눌 수 있다. 소송상 화해는 소송이 개시된 후에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소송을 자주적으로 종료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가 소 제기 이전에 법원에서 화해하여 분쟁을 종료케 하는 행위이다.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는 모두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지만, 민법상의 화해 계약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다.

조정은 제삼자가 독자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타협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 당사자가 이 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거부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하는 제삼자는 다양할 수 있다. 법원이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민사 조정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민사 조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사 조정은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일반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해당 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조정 담당 판사가 직접 처리하거나 판사인 조정장과 2인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 위원회에서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조정이 결렬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도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정 담당 판사 또는 조정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법원에서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조정 위원은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고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 민사 조정법에서는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조정 절차에서 한 진술은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재 절차와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다르다. ㉢ 중재법의 규율을 받는 중재는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되는데, 판정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심으로 진행되는 소송 절차와 달리 중재는 한 번의 판정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나 중재 판정이 강제 집행력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 결정을 얻어야 한다.

ADR는 법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지만 엄격한 법리에 의해 구속되지 않아서 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자유로우며, 소요 기간도 소송보다 대체로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ADR는 판례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미래

의 분쟁 해소를 위한 기준점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 또한 ADR에 참여하는 당사자 사이에 정보와 지식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공정한 결과가 도출되거나 권력이나 재력을 이용해 법의 심판을 벗어나는 도구로 ADR가 이용될 수도 있다.

1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DR의 한계를 밝히고 사례별 보완책을 소개하고 있다.
- ② ADR의 종류를 분류하고 ADR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DR의 개념을 정의하고 ADR의 특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④ ADR가 도입된 배경을 서술하고 소송 절차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 ⑤ ADR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ADR가 현대 사회에 주목받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12.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DR는 소송에 비해 형식적으로 자유롭고 분쟁이 해결되는 기간이 대체로 짧다.
-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중재를 통해 결론이 난 분쟁을 중재인이 재심할 수 있다.
- ③ ADR를 통해 종료된 사례는 유사한 사례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점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
- ④ 제소 전 화해는 소 제기 이전에 법원에서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해 분쟁을 종료케 하는 행위이다.
- ⑤ 민사 조정은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분쟁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1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은 화해가 성립해도 화해 이전의 법률 관계를 다룰 수 있다.
- ② ㉡는 화해로 해결할 수 없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③ ㉠은 ㉡와 달리, 분쟁이 종료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④ ㉡는 ㉠과 달리, 불법 행위로 인한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
- ⑤ ㉠과 ㉡는 모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재판에서 분쟁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려고
- ② 조정에서 분쟁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하게 하려고
- ③ 소송 전에 분쟁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 ④ 재판에서 분쟁 당사자 간의 대립을 완화해 융통성 있게 해결하려고
- ⑤ 법의 범위 밖에서 진행된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의 영향을 차단하려고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갑, 을, 병은 각각 정이 만든 엔진 오일을 자동차에 사용하였는데, 엔진 오일의 불량으로 자동차 엔진이 손상되었다. 분쟁 해결을 위해 갑은 정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정은 소송 중에 갑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화해를 제안했다. 을과 정은 법원의 조정 위원회에서 심리를 받았다. 조정 위원회는 100만 원을 정이 을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을과정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병은 정과 합의하여 자동차 관련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중재 절차를 밟았다. 중재인은 정이 병에게 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갑, 을, 병, 정은 모두 법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았다.

- ① 정이 갑에게 제안한 배상 금액을 갑이 받아들인다면 판사의 판결 없이도 소송을 종료할 수 있겠군.
- ② 을과 정의 분쟁을 심리하는 조정 위원회의 조정 위원은 정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겠군.
- ③ 을과정이 조정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조정 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군.
- ④ 갑과정이 합의한 내용, 을과정이 합의한 내용은 법원에서 각각의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겠군.
- ⑤ 정이 병에게 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인의 판정에 대해 정이 거부하더라도 병은 법원의 결정 없이 강제 집행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겠군.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싸늘한 대리석 기둥에 모가지를 비틀어 맨 한란계(寒暖計),
문득 들여다볼 수 있는 운명(運命)한 오 척 육 촌(五尺六寸)의 허리 가는 수은주,
마음은 유리관보다 맑소이다.

혈관이 단조로워 신경질인 여론 동물(輿論動物),
가끔 분수 같은 냉(冷)침을 억지로 삼키기에
정력을 낭비합니다.

영하로 손가락질할 수돌네 방처럼 추운 겨울보다
해바라기 만발할 팔월 교정이 이상(理想)꽃소이다*.
피 뿜을 그날이—

㉠ 어제는 막 소낙비가 퍼붓더니 오늘은 좋은 날씨올시다.
동저고리 바람에 ㉡ 언덕으로, 숲으로 하시구려—
이렇게 가만가만 혼자서 컷속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마도 진실한 세기의 계절을 따라—
하늘만 보이는 울타리 안을 뛰쳐,
역사 같은 포지션을 지켜야 합니다.

- 윤동주, 「한란계」 -

* 이상꽃소이다: 이상으로 삼고 싶다.

(나)

아슬히 깎아질린 벼랑에 산다.
내 가슴 이 비수(匕首)는 자라오르는 난(蘭)
질은 안개비에 서려 바람에 떠다.
찬 달빛 거울 비치면 맹금(猛禽)의 상한 죽지
㉢ 언덕을 밀물 덮던 현란한 기폭
포효(咆哮)가 지금은 꽃으로 떨어져 말이 없는
그 침묵 심연(深淵) 이쪽 벼랑에 산다.
㉣ 언젠가는 다시 불 하늘 아침 폭풍
땅에는 동남 서북 혁명 치달려
비수가 그 사슬을 그물을 그 밤을 찢러
마지막 빛의 개벽 꽃 흐트러뜨릴
난이여 안개 떠는 벼랑에 산다.

- 박두진, 「고산식물」 -

16.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는 (나)와 달리,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인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특정한 시구를 반복하여 대상의 현재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시어를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명사형 어미로 시행을 종결하여 대상의 이상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의 ‘소낙비’가 그친 ‘오늘’의 ㉡은 ‘나’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 ② ㉢은 ㉡에 도달한 ‘나’가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는 시간이다.
- ③ ㉡과 ㉢ 모두 ‘나’가 현재의 고통을 떠올리도록 하는 공간이다.
- ④ ㉠은 ‘소낙비’가 퍼부어 ‘나’가 낙담했던 시간이고, ㉡은 ‘기폭’이 덮어 ‘나’가 회피했던 공간이다.
- ⑤ ㉠은 ‘오늘’과 달리 ‘나’가 방황했던 시간이고, ㉢은 ‘비수’를 통해 ‘나’가 혼자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현재의 부정적 상황 끝에 도달할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의지로 의미를 확장한다. (가)에서 화자는 자신을 한란계로 대상화하여 성찰하고, 현재와 달라질 자신의 모습을 기대한다. (나)에서 화자는 자기 내면을 벼랑의 난으로 형상화하면서 난의 특별한 속성을 통해 이상적인 상황을 기대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① (가)에서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겨울’의 차가움을 통해, (나)에서 ‘짙은 안개비’가 서리는 암울함을 통해 암담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가)에서 ‘해바라기 만발할 팔월’의 풍성함을 통해, (나)에서 ‘빛의 개벽 꽃 흐트러뜨릴’ 밝음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이 끝나고 마주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가)에서 ‘혈관’이 ‘단조로워 신경질’적이라는 인식을 통해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나)에서 ‘꽃으로 떨어져 말이 없’다는 난의 속성을 통해 미래를 향한 의지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에서 ‘오 척 육촌’의 ‘허리 가는 수은주’를 통해 화자가 자신을 대상화하고 있음을, (나)에서 ‘내 가슴’에 난이 ‘자라오’른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난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가)에서 ‘울타리 안을 뛰쳐’ 나올 행위를 통해 현재와 달라질 화자의 모습을, (나)에서 ‘하늘 아침 폭풍’과 ‘동남 서북 혁명’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이상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이렇게 되자 큰아들인 황두표 씨는 두현이를 위해 알탕갈탕 돈을 모아 보내곤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구정물 흐르는 무중의를 입은 채 허리뼈가 휘고 손톱이 닳고 손가락이 빠드러지도록 소같이 말같이 바닷길 논일 밭일을 해야만 했다. 황두표 씨가 웬만하면 툄툴거리고, 욕지거리를 하고, **대들고 싸움질을 하는 버릇이 몸에 밴**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다.

“웃학교 다니는 놈만 아들이고, 집에서 무중의 차고 일하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요? 그물이 삼천 코라도 버리가 으뜸인 법인데 아버지 어머니는 해도 너무해요. 농사지어 놓은 것 싹 쓸어다가 그놈 밑구멍에다가 바치고, 동지선달 눈보라 속에서 언 손발 붙어 가면서 김 뜯어 돈 몇 푼 벌어 놓으면은 또 그것도 모조리 굶어다가 때려 넣고…… 그래 나하고 두순이하고 두철이는 뭇을 먹고살 것이요?”

황두표 씨는 ㉡ **막 스물에** 장가를 들었는데, 그런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주막 출입을 하였고, 아르스 술기운 퍼지기만 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삿대질을 하며 대들곤 했다.

“도지로 붙인 농사 열 마지기 죽어라고 짓고, 돌부처도 눈물 흘린다는 고추 알바람 속에서 김 뜯는다고 뜯고 해 보아야, 도로 아미타불이고 도로 아미타불이고…… 나 이대로는 못 살겠소. 아버지 어머니는 두현이 그놈 따라가시오. 일찌감치 우리 갈라섭시다. 나 야무지고 똑똑한 놈 중 노릇 그만 할라요. 못나고 바보 같은 놈은 못나고 바보 같은 대로 저 벌어 저 먹고살아야 쓴다고 다들 그래 썩디다. 나 총독부살이 하고, 군수나 도지사살이 할 사람 덕 안 보고 살라요. 아버지 어머니나 그놈 등에 업혀 가지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호의호식 잘 잡숫고 잘 입고 잘 살아가시오.”

그러는 사이에 ㉢ **대동아 전쟁이** 터졌고, 사세 다급해진 면소나 주재소에서는 물긋물긋하고 똑똑한 청년 들을 징용이나 징병으로 뽑아 갔다. 여느 때보다 혹독하게 나락공출을 해 갔고, 낯쇠로 된 그릇들은 모두 굶어 갔다. 소나무 광술을 공출하고, 목화나무 뿌리의 껍질을 수집해 갔다. 그때 황두표 씨는 농사일을 하는 틈틈이 동네 구장 일을 보았고, 학교와 주재소의 방공호를 파는 일을 감독하러 다니기도 하고, **광술을 따는 일**을 독려하러 다니기도 하고, 공출 나락을 짊어져 나르는 울력꾼을 뽑아 내보내기도 했다. ㉣ **그런 어느 날 밤늦게** 김광진 씨와 함께 주막 거리에서 화주 몇 잔씩을 걸치고 들어오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스러웠다. 바깥 날씨가 쌀쌀한데도 어머니가 뒷마루에 걸터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이 이렇게 시끌시끌할 때는 조금 일찍 들어오곤 그래라.”

어머니는 다만 이렇게 낮은 소리로 타이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보릿가루 죽을 쑤어 가지고 들어온 아내가 귀엣말로,

“두현이 도령이 왔어요. 모두 병대에 나가라고 하니께 피해서 도망을 왔다는구만요. 시방 뒷산 굴속에 있어요.”

하고 말했다. 뒷산에는 나락이나 고구마 같은 것들을 감추는 황두표 씨네 굴이 있었다. 그 굴은 아버지 껌철구가 뚫고, 거기에다가 나락을 네 가마니나 숨겨 놓았다. 골짜기에는 동네 집집들이 모두 자기네 굴 한 개씩을 파 놓고 나락을 숨겼다. 면사무소 사람들과 순사들이 몰려 나와 곡간에 있는 양식들을 보이는 대로 공출해 가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황두표 씨는 밤새도록 옆치락뒤치락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두현이에 대한 생각만 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주재소엘 가서 밀고를 해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신성한 황군(皇軍)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몸을 피하고 있는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 천황의 명예로운 적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출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향해 강변하면서, 비겁하고 반역스럽게 몸을 피하는 동생 두현이를 욕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원망했다. ㉤ **몸을 피하고 숨으려면은** 낯선 곳에서 피하고 숨을 일이지, 왜 하필이면 제 형이 구장 일 보는 고향 마을로 들어왔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에게 충성의 모범을 보이고, 남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하는 형의 얼굴에 왜 먹칠 똥칠을 하려 든단 말인가. 앞으로 군수도

되고 고등 문관 시험도 보고, 도지사도 되고, 총독부 높은 자리에도 앉게 될 사람이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단 말인가. 만약에 제 놈이 숨어 들어와 있다는 말이 주재소나 면사무소에 알려지면 이 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을 꼬드겨 **징용에 보내고 징병에 보낸** 이 형의 입장은 얼마나 난처하게 되는 것인가.

“안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가서 잘 타일러 가지고 제 발로 걸어 나가서 부끄럼 없이 **성전에 참여**하라고 그러시오.”

황두표 씨는 아버지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은 채 분명하게 말했다. ㉔ 방 안에는 먹물을 풀어 놓은 듯한 어둠이 수렁거리고 있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황두표는 주재소에 밀고해 순사에게 두현이를 넘기고 두현이가 떳떳하게 자원 입영하는 것처럼 꾸민다. 이 일로 인해 황두표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사이가 틀어진다.

“㉔ 항복을 했어요.”

가네가와 서기는 목멘 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가네가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면사무소를 나오는 황두표 씨는 눈앞이 아득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이때껏 그의 손으로 끌어낸 공출과 붙잡아 징용 징병을 보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퍼붓던 **욕설과 저주의 말들**을 생각했다. 인부들을 먼저 보내고 황두표 씨는 잠시 면사무소 앞 장터 거리를 배회하다가 회진으로 가서 배를 대절해 타고 금당도의 처가로 갔다. **처가의 골방**에 숨어 해방되었다고 날뛰어 대는 사람들의 등쌀을 피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 망했다고 함부로 까불어서는 안 된다. 머지않아서 일본은 일어나 다시 들어올 것이다. 2년이나 3년쯤 뒤에는 틀림없이 다시 일어나 들어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어떻게 숨어 지내자.’ 하고 생각했다.

숨어 산 지 ㉕ 두 달째 되던 날 장인어른이 황두표 씨에게 말했다.

“귀신은 속여도 그물코는 못 속이는 법이여. 사람을 보내서 수소문해 보니께, 다행히도 너희 동네에서 징용 징병에 간 사람들은 모두 탈 없이 돌아왔다고 한다. 돌아가서 손이 발 되도록 빌어라. 빌면은 귀신도 듣는 법이고, 고기 한 점으로 잡귀 천을 달래는 법이고, 참수할 죄인도 순순히 목을 내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하면은 살려 주는 법이다. 미움을 특히 많이 샀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밤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번 빌어 봐라.”

아랫넛 바다 끝에 셋노란 까치놀이 뜰 무렵에 황두표 씨는 손위의 처남이 저어 주는 배를 타고 고향 마을 포구로 건너갔다. ㉖ 그는 마을에 들어서서는 대로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여 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마을 사람들의 손발은 닳고 닳아 북어 껍질처럼 거멓게 거칠었지만 마음은 명주배처럼 여리고 고왔다. 그들 가운데는 황두표 씨의 손을 감싸 쥐고,

“어디 자네가 한 일인가, 시국이 한 일이지.”

하고 오히려 황두표 씨를 위로하려 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 두현이는 그를 쉽사리 용서해 주지를 았았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그들은,

“오냐, 이제부터라도 속 차리고 마을 사람들이나 형제 간들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삼가면서 잘 살아라. 무엇이 좋네 무엇이 좋네 해싸도 형제 간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은 따스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이나 풍기는 냄새가 그렇지 않았다. ㉠ 그들의 눈길이 와닿는 살갓마다 송충이의 발과 살이 닿고 박히는 것처럼 간지럽고 머들머들하고 숨벅거렸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는 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그의 동생만을 위해 주고는 했다. 황두표 씨하고는 의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디선가 돈을 구해서 그의 동생 두현이를 서울로 보내 버렸다.

- 한승원, 「해변의 길손」 -

19.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 회고적 서술을 통해 당대의 세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독백적 서술을 통해 중심인물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묘사적 서술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④ ㉣: 요약적 서술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⑤ ㉤: 비유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외양을 드러내고 있다.

20. 밑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표가 눈치채지 못하게 두현이를 뒷바라지하였다.
- ② ‘두표’는 자신의 마을이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으로 믿었다.
- ③ ‘아내’는 두표에게 고향에 돌아온 두현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 ④ ‘장인어른’은 자신이 알게 된 마을의 소식을 두표에게 전달하였다.
- ⑤ ‘손위의 처남’이 두표를 고향 마을 포구로 데려다주었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은 두표가 동생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에게서 독립을 결심하는 시점이다.
- ② ㉡는 두표가 마을 사람들이 굴속에 숨긴 나락을 순사에게 제공하는 계기로 기능한다.
- ③ ㉢는 두표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는 시점이다.
- ④ ㉣는 두표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감정이 나타나는 계기로 기능한다.
- ⑤ ㉤는 두표가 두현의 생사 여부를 걱정하는 마음을 갖는 시점이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보 기 >

「해변의 길손」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된 주인공의 욕망 추구하고 좌절의 과정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의 욕망 추구는 가족 구성원과 빚어지는 갈등 및 민족 구성원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남긴 채 좌절된다. 주인공의 이러한 비극적 삶은 그의 개인적 욕망과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상황이 결부된 결과이다.

- ① 두표가 부모에게 ‘대들고 싸움질을 하는 버릇이 몸에 밴 것’은, 두현에 대한 부모의 편애로 생긴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두표가 ‘광술을 따는 일’과 ‘징용에 보내고 징병에 보낸’ 일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그의 욕망 추구가 일제 강점기와 결부되어 나타난 행위로 볼 수 있겠군.
- ③ 두표가 부모에게 두현이 ‘성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욕망에서 비롯된 가족 공동체의 희생이 민족 구성원과의 갈등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두표가 ‘욕설과 저주의 말들’을 떠올리고 ‘처가의 골방’에 숨은 것은, 그의 욕망 추구가 좌절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두표가 부모와 ‘의논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은,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이 빚은 부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겠군.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리마 마구간에서 늙고 좋은 칼 칼집에서 운다
장부의 품은 뜻을 속절없이 못 이루고
귀밑에 흰 털이 날리니 그를 서러워 하노라

- 김천택 -

(나)

오래전 존귀하기야 맹상군만 할까마는 오랜 뒤 원통함이 맹상군이 더욱 서럽다
식객이 적었던가 명성이 없었던가 개 도적 닭의 울음 인력으로 살아나서* 머리 희어 죽어서 무덤 위에
가시가 나니 소 치는 아이들이 그 위로 거닐면서 슬픈 노래 한 곡조를 부르리라 생각했던가 웅문조(雍門調) 일곡금(一曲琴)*에 맹상군의 한숨이 오르는 듯 내리는 듯
아이야 거문고 청쳐라* 살았을 때 놀리라

- 작자 미상, 「맹상군가」 -

* 개 도적 닭의 울음 인력으로 살아나서: 동물을 흉내 내거나 재주가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맹상군이 위기를 모면한 일을 가리킴.

* 웅문조 일곡금: 중국 거문고 명인 웅문주가 거문고를 타서 맹상군을 흐느끼게 했다는 고사.

* 청쳐라: 거문고의 현을 쳐서 음조를 맞추어라.

(다)

나에게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 강산을
 갈수록 좋게 여겨 들어가고 아니 나오는가
 태평성세 버려두고 벼슬도 하직하여
 천명을 즐길 적에 서성이고 노닐면서
 날이 새면 하는 일이 약을 캐서 요기하고
 물 마시고 책을 쓰며 장기 바둑 무슨 일인가

운산(雲山)의 주인 되어 ㉠ 도말아 다스리니 분주하다

동중서(董仲舒)가 은거하던 동백산(桐栢山)이며 이원(李愿)이 은거하던 반곡(盤谷)인가
 은일의 즐거움 일을 삼아 총계곡(叢桂曲)을 읊으니
 서유자(徐孺子)의 지조(持操)런가 한백휴(韓伯休)의 맑은 모습이로다
 촉도시(蜀道詩)* 외우면서 독락원(獨樂園)* 좋게 여겨
 대숲으로 울을 삼고 황화(黃花)로 ㉡ 벗했는가
 무정하다 저 세월아 너의 백발 무슨 일인가

죽세를 멀리하고 종산(鍾山)에 깊이 들어

지비 피해 은둔한가 그 일을 내가 알고 싶어

어와 저 신선이여 이내 말을 자세히 듣소
 벗과 친척 다 버리고 고향 형제 멀리하니
 이내 마음 맺힌 시름 ㉢ 그 누가 알 것인가
 이황의 꺾리가(闕里歌)* 이제 와서 멀어지고
 도산십이곡 써내어서 외로이 앉아 보노라니
 어디서 오는 벗님 변무소(辨誣疏) 외운 말이
 크고도 더 큰 경륜 이정구의 도략(度略)*이라
 북벌하잔 송시열이 그 아니 장하던가

어언 세월 이백 년에 차가운 못에 비친 가을 달은 흔적 없네

어두운 길의 후생들은 현인들의 의론(議論) 어디서 볼까

떠들썩하고 복잡하다 **근일 소식 나에게**는 말을 마오

태백산이 어디인가 처사시(處士詩)나 외우고저

(중략)

동쪽의 작은 땅에 남은 유물 무엇인가

광수여대(廣袖麗帶)* 좋은 거동 **명나라의 옛 제도** 아니던가

이제 와 보려 하니 **비루한 풍속** 어이할까

밝게 빛나는 선왕법복(先王法服) 어디 가서 또 볼 것인가

대명률(大明律) 간직하고 민농시(閔農詩)* 부르고자

어디서 부는 광풍 서석(瑞石)의 뜨는 구름

일시에 걷어가니 태고적 모습 그 아닌가

분명하다 저 서석(瑞石)아 ㉣ 그 아니 부러운가

말 없고 시비 없이 옛날부터 농아(聾啞)였네
나도 어찌 너와 같이 신을 벗고 ㉮ 이 세상을 물러났네

- 정해정, 「석촌별곡」 -

* 축도시: 중국 시인 이백의 시.

* 독락원: 사마광이 은거하며 만든 정원.

* 꺾리가: 유교의 덕목을 권면하는 노래.

* 이정구의 도략: 변무소(辨誣疏)를 지어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에서 능력을 발휘한 이정구의 경륜.

* 광수여대: 폭이 넓은 소매와 아름다운 허리띠.

* 민농시: 농사를 걱정하는 시.

2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작중 분위기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는 고사를 인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에 대한 확신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답하는 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공간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강조하고 있다.

24.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에서는 ‘늑고’를 통해 ‘품은 뜻’이 원숙해짐이 나타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장부’의 의연함이 ‘속절없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서럽다’를 통해 ‘식객’의 외로움이 드러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원통함’을 달래려는 심정이 ‘명성이 없었던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⑤ (나)에서는 ‘무덤’의 쓸쓸한 분위기가 ‘가시가 나니’를 통해 조성되고 있다.

2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운산에서 풍류를 즐기는 상황을 나타낸다.
- ② ㉡: 황화에 대한 친밀감을 보여 준다.
- ③ ㉢: 친척과 형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 ④ ㉤: 서석의 변함없는 모습에 대한 감탄을 나타낸다.
- ⑤ ㉮: 속세와 시비를 피하여 살아감을 의미한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가)~(다)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의 현재에 대한 인식에서 촉발된 정서나 태도를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역사적 인물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보며 삶에 대한 깨달음과 태도를 드러낸다. (다)의 화자는 과거 세상의 모습을 회고하며 현실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의 ‘좋은 칼’이 ‘칼집’에서 울고 있다고 인식한 것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현재의 삶에 대한 화자의 서러움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존귀’했던 과거와 ‘소 치는 아이들’의 ‘슬픈 노래’로 ‘맹상군’의 삶을 되짚어 보는 것에서 화자가 삶의 무상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다)의 ‘가을 달’이 없어 ‘어두운 길’에 ‘후생들’이 있다고 인식한 것에서 화자가 과거와 다른 부정적인 현재에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귀밑에 흰 털이 날’린다고, (다)의 ‘명나라의 옛 제도’가 ‘이제 와 보’니 ‘비루한 풍속’이 되었다고 인식한 것에서 현실의 변화로 인해 촉발된 화자의 감정을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아이’에게 ‘거문고 청쳐라’라고, (다)의 ‘근일 소식 나에게는 말을 마오’라고 말한 것에서 현재에 대한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겠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남동생 연경과 함께 살아가던 현경은 남장을 한 채로 과거에 합격하고 큰 공을 세워 제후의 지위에 오른 후 천자에게 여자임을 밝힌다. 현경은 장연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여 부인과 장연의 첩인 윤영의 박해로 장연의 집에서 나온다.

이때 집 안이 온통 소란스러운 탓에 잠에서 깨어난 연경이 급히 달려 나와 그 이유를 물으니 현경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놈은 자객에 불과하다.”

하니, 연경이 또 물었다.

“누가 자객을 보냈나이까?”

현경이 말하기를,

“윤영의 소행이니 참으로 놀랍구나. 또한 무도한 자객이 천금을 중하게 여겨 목숨도 돌아보지 않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하고 시체 허리에 묶인 호패를 보니, 복건 장후연이라 했다. 현경이 연경에게 그 **패를 끌러 간직**하라 이르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침상에 누웠으니, 이는 옛날 황석공의 둔갑술이라도 미치지 못하리라.

각설. 천자가 성스러운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니 천하가 태평한지라 궁궐 안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에 조정 백관과 그 부인들을 초청했는데 장 시랑의 부부도 참여했다. 이날 현경이 궁궐 안 섬들에 이르니 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기를,

“장연의 부인이 되니 어떠한가?”

하시니, 현경이 붉은 도포와 옥대를 단정히 여미고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신첩이 성은을 입사와 명부(命婦)*가 되었사오나 본래 운수가 사나워 그간 무슨 연고가 있었나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본부(本府)*에 돌아와 처음의 뜻을 지키고 있나이다.”

천자가 매우 놀라 그 연고를 자세히 물으시니 현경이 조금도 숨김없이 전후 사정을 상세히 아뢰었다. 천자가 보건대, 현경이 장연과 여 부인의 이름을 굳이 거론하지 않고 조용하고 온순하게 홍안박명(紅顔薄命)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동이 마치 매우 어질고 후덕한 부모 앞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천자가 현경을 더욱 사랑하시었다.

천자가 현경의 말을 다 들은 뒤 장 시랑 부자(父子)를 불러 꾸짖으시길,

“태학사 이현경은 중신이요, 모든 관료 중에 으뜸 신하로다. 짐이 수족같이 사랑했는데 예전에 여자라고 아뢰기에 부득이 병권은 환수했노라. 그러나 나라를 평안케 한 공을 만분지일이나마 갚고자 청주후 작위는 거두지 않았으며 지금도 짐이 매우 사랑하는 신하이노라. 이 학사가 장연의 아내 되기에 무엇이 마땅치 않으며 또한 장 시랑의 며느리가 되기에 무엇이 부족하냐? 뜻밖에 몇몇 사람이 충효를 겸비한 사람을 모함해 짐의 뜻을 어기니 이는 현경을 업신여긴 것일 뿐만 아니라 짐을 괘시하고 조정을 능멸한 죄이니라.” 하며 얼굴에 분노의 기색을 가득 띠셨다.

장 시랑과 태부 장연이 황공해 몸 둘 데를 모르고 있는데, 천자가 다시 운영을 잡아 와 엄하게 문초하라고 명하셨다. 운영이 잡혀 와 엄위한 천자 앞에 이르니 어찌 감히 거짓을 고하리오? 몹시 놀라 뺨을 잃은 채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과 자객을 보낸 일을 낱알이 자백하니 천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자객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운영이 엎드려 아뢰었다.

“자객이 그날 칼을 품고 청주후 부중으로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나이다.”

천자가 현경에게 다시 물으시니 현경이 사실대로 아뢰고 **자객이 찔던 호패**와 머리를 가져와 올렸다.

(중략)

각설. 장 시랑이 집으로 돌아와 성상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여 씨를 크게 꾸짖으니 여 씨가 한마디 말도 못 했다.

다음 날 시랑이 장연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 후(李侯)**를 맞아 오너라.”

하니, 장연이 **부친의 명을 받들어 청주후 부중으로** 갔다.

문지기가 문안을 올리고 온 까닭을 물으니 장연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너희가 이 후의 명령도 듣지 않고 감히 나에게 이렇듯 무례하게 구느냐?”

하고 문을 두드리니 누각 위에 있던 ㉠ **현경의 하인들**이 장연의 거동을 보고 크게 웃었다. 장연이 화를 참지 못하고 누상으로 오르니 하인들이 더욱 크게 웃었다. 이에 장연이 꾸짖기를,

“이 후의 하인인 너희가 어찌 재상을 조롱하느냐?”

하는데, 하인들이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장연이 화가 나서 또 꾸짖기를,

“이 후는 기주후인 **내 부인에 불과하고 나는 청주후의 남편**인데 어찌 이렇듯 무례하게 구느냐?”

하니, 한 하인이 대답했다.

“상공께서 비록 청주후의 남편이시나 우리 이 후는 대원수요, 상공께서는 부원수입니다. 직급으로 말한다면 누가 더 높습니까?”

장연이 화가 나서 칼을 뽑아 들고 소리치며 몸을 솟구쳐 하인들을 다 죽이려 했으나 하인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 장연이 곧바로 내당으로 들어가니 현경이 단정히 앉아 한가하게 거문고를 희롱하고 있었다. 장연이 그 거동을 보고 분해 긴 창으로 찌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참고 나아가니 현경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여전히 거문고만 희롱했다. 장연이 큰소리로 꾸짖기를,

“이 후는 어찌하여 하인들을 부추겨 내 체면을 손상하며 부인 또한 나를 보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가? 예전에는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오늘 일은 이 후가 잘못했도다.”

하니, 현경이 들은 체도 하지 않고 거문고만 탔다. 장연이 더욱 화를 내며 꾸짖기를,

“그대가 매우 교만한 태도로 나를 대하니 내가 그대의 시녀를 베어 죄를 물으리라.”

한데, 현경이 거문고 타기를 멈추고 장연을 심하게 꾸짖었다.

“내가 비록 용렬하나 **벼슬이 높은데 감히 대신을 꾸짖고 욕하느냐?** 이는 직위의 높고 낮음을 무시하고 제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남의 잘못만 나무라는 것이리라. 그대가 용렬하나 또한 금으로 된 인장을 차고 하늘이 맑게 갠 대낮에 어찌 후백(侯伯)*의 내실에 들어와 이렇듯 심하게 장난을 치는가? 스스로 마음을 돌려 가기를 요청하오. **장씨 집안에 들어가고 가지 않는 것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으니** 장시랑의 뜻은 내가 알 바가 아니오.”

- 작자 미상, 「이학사전」 -

* 명부: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본부: 본디 살던 곳.

* 후백: 제후나 높은 귀족을 이르는 말.

27.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현경은 운영이 자신에게 자객을 보냈다고 생각했다.
- ② 장연과 현경의 결혼으로 인해 현경의 병권이 환수되었다.
- ③ 거문고를 타는 현경의 모습에 장연의 분노는 고조되었다.
- ④ 현경은 장연이 내실에서 벌인 일을 나무라며 돌아가기를 요구했다.
- ⑤ 천자는 현경을 모함하는 것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보았다.

28. [잔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천자가 현경을 장시랑 부부와 만나게 하려고 마련한 자리였다.
- ② 천자가 장연이 현경의 배필이 될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 ③ 천자가 장시랑 부부와 장연을 불러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자리가 되었다.
- ④ 천자가 천하를 태평하게 한 것이 이 학사의 공임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다.
- ⑤ 천자가 본부에 돌아가게 된 현경의 사정에 대해 알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장연에게 굴복하지 않고 장연의 무지를 일깨운다.
- ② 장연의 난폭함을 이유로 현경의 고귀함을 강조한다.
- ③ 현경의 뜻에 따라 장연이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한다.
- ④ 현경의 입장을 고려하여 장연과 현경의 화해를 유도한다.
- ⑤ 현경의 권위에 기대어 장연과 현경의 사회적 관계를 드러낸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조선 후기 사회는 여성에게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존중과 시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했다.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고 갈등 해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이학사전』의 주인공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도면밀하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가부장적인 남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인다. 주인공의 이러한 면모는 조선 후기의 주체적인 여성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현경이 ‘패를 끌러 간직’하였다가 천자에게 ‘자객이 찼던 호패’를 올린 것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한 것이겠군.
- ② 장연이 ‘이 후를 맞아 오’라는 ‘부친의 명을 받들어 청주후 부중으로’ 간 것은 며느리에게 시부모 봉양을 강조하는 조선 후기 사회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장연이 하인들에게 현경은 ‘내 부인에 불과하고 나는 청주후의 남편’이라고 화를 내는 것은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현경이 ‘시녀를 베어 죄를 물으리라’는 장연의 말에 ‘벼슬이 높은데 감히 대신을 꾸짖고 욕하느냐’고 꾸짖는 것은 사회적 성취를 바탕으로 남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겠군.
- ⑤ 현경이 ‘장씨 집안에 들어가고 가지 않는 것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영
관